

## 彤管의 전통, 그 일상의 정치

이경하 (서울대 기초교육원)

1. 여성이 기억되는 방식
2. 彤管의 전통
3. 재구성된 역사의 규범화된 일상
4. 보편적 일상의 흔적들
5. 맺음말

## 1. 여성이 기억되는 방식

“여성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유향의 『列女傳』에서 출발함이 온당할 것 같다. 기원전 1세기에 이루어진 『열녀전』은 남성이 규정한 가장 이상적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서, 유교문화권에서 여성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 강력한 서사물이기 때문이다. 『열녀전』은 『예기』나 『여계』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설교 방식과 달리 이야기와 운문과 회화를 적절히 이용한 효과적 재현을 통해 보다 큰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한대 이후 청말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주석서와 『후한서』 등 후대의 주요 저작들이 이 책을 인용하였고, 유학의 발전 및 확산에 따라 『열녀전』은 중세 유교적 여성관을 전파하는 정전의 위치를 고수해 왔던 것이다.<sup>1)</sup>

그런데 여성에 대한 중세 유교문화권의 지배담론을 형성한 『열녀전』의 계보를 추적할 때, 조선에서의 변용을 ‘烈女傳’에서 찾는 것이 온당한가

의문이다. 유향이 제시했던 ‘列女’는 정절 뿐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덕목을 구현하고 있는데, 조선에 와서는 모범적인 여성이 ‘烈女’의 형상에 국한되었다는 것이다.<sup>2)</sup>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烈行의 과도함이나 정절에 대한 숭배가 중국에서보다 조선에서 오히려 더 심해 보이며,<sup>3)</sup> 조선후기에 烈女를 소재로 한 시문의 창작이 유행처럼 번졌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sup>4)</sup> 그러나 조선 사회가 요구했던 모범적인 여성상을 ‘烈女’에 한정하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아 보인다. 그러한 오관은 과거 여성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烈女傳이 상대적으로 현대 연구자들의 관심을 보다 많이 끌어들였다는 점에 기인하지 않는가 싶다.

이 글에서는 고려 때부터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망자를 위한 글쓰기’ 전통을 중국에서 기원한 유향 『열녀전』의 계보와 ‘女史彤管’의 전통 속에서 이해하고, 그 자료가 가지는 가치와 한계를 일상의 재현이란 측면에서 논의하려 한다. 결론을 앞당겨 말하자면, 烈女傳은 ‘특수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 여타의 여성 대상 행장, 묘지, 전 등은 ‘보편적 일상’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烈女傳 이외의 행장, 묘지 등은 주로 중세 상층여성의 보편적 일상을 규범적인 연술로 치환함으로써, 유향이 烈女들을 통해 제시했던 유교적 여성규범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 2. 彤管의 전통

彤管이란 본래 중국에서 ‘고대에 女史가 사용했던 붉은 빛의 붓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런데 대략 한나라 때를 전후해서는 ‘왕후·비빈의 행실에 대한 포폄’을 뜻하다가, 조선에 오면 왕후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여성사 일반, 특히 ‘모범적인 여성의 역사’란 의미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2) 최진아, 「견고한 원전과 그 계보들-동아시아 여성 쓰기의 역사」, 위의 책, pp.93-97.

3) 위의 논문, p.95.

4) 한국고전여성문화학회 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참조.

5) 傳이라고 해서 반드시 열행과 같은 특별한 행적을 보인 여성만을 입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송시열이 쓴 <姑母淑人宋氏傳>은 傳을 표방하고 있지만 일반 행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1)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편,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열녀전』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詩經·邶風』 <靜女>편에 “靜女其變，貽我彤管.”이란 구절이 있는데, 이에 대해 『毛詩』에서는 “옛날 后夫人은 반드시 女史彤管의 법을 두어 女史가 잘못을 기록하지 않으면 그 죄를 죽음으로 다스렸다.”는 설명을 부기하고 있다. 『모시』의 설명은 『시경』 <정녀>편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하지만, ‘女史彤管의 법’이 이미 한나라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後漢書·皇后紀序』에도 “女史彤管은 功을 기록하고 過를 적는다.”고 되어 있어, 중국에는 일찍이 황후의 행실 가운데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을 기록하는 女官이 별도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소임을 맡은 여관을 女史 또는 彤史<sup>6)</sup>라고 불렀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종종 때 이 女史彤管의 제도를 마련하자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지사 김안국이 먼저 제안을 하고 장령 기준과 시강관 이청이 이에 찬동하는 뜻을 비쳤는데, 종종은 그다지 탐탁찮게 여긴다. 다소 길지만 그 대화의 전문을 인용한다.

○ 조강에서 『속강목』을 강하다가 동지사 김안국이 아뢰었다. “여기에 태후와 신종이 말한 일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이는 규문 안의 말이라 史官으로서 기록할 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 女史가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女史는 규문 안에서 임금의 거동과 언행을 모두 다 기록하므로 바깥 사람이 그 일을 알 수 있는 것이며, 史策에 기록하여 놓음으로써 뒷사람이 그것을 보고 선악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규문 안의 일을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은 女史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규문 안 이부자리에서의 一動一靜을 어떻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古制에 따라 女史를 두어 거동과 언행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고 여겨집니다.”

장령 기준이 아뢰었다. “안국의 말이 합당합니다. 임금은 깊은 궁궐 속에 거처하므로 그 하는 일을 바깥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女史를 두어 그 선악을 기록하게 하였으니, 비록 깊숙한 궁궐 속 혼자 마음대

로 할 수 있는 곳에서일지라도 감히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이니, 모름지기 古制에 따라 女史를 두는 것이 가합니다.”

임금이 말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모두 글을 지을 줄 알았으므로 올바른 女史를 얻어서 宮壺의 일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글에 능한 여자가 아마도 적은 것 같으니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다.”

안국이 아뢰었다. “女史는 반드시 글에 능해야만 될 수 있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文字를 조금 해득할 수 있다면 규문의 일을 보는 대로 기록하여, 後王과 後賢으로 하여금 先王은 규문 안 혼자 있는 곳에서도 잘못하는 일이 없었음을 알게 하면 되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勸懲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밖에서는 좌우에 侍從과 史官을 갖추고 있으면서 안에는 女史가 없으니 治道의 큰 흠입니다. 규문 안 이부자리에서의 일이 어떠한지를 후세의 자손들이 모르게 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시강관 이청이 아뢰었다. “세속의 이른바 諺文으로 기록해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어찌 文字로만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임금이 말했다. “女史의 직임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니, 반드시 마음이 올바른 여자를 얻는 뒤에야 가하다. 史官도 모름지기 정직한 사람을 가려야 한다. 史筆을 잡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청이 아뢰었다. “史官과 女史는 다릅니다. 史官은 公議를 잡아 포폄을 명백하게 하여 만세에 보이는 것이 직무이고, 女史는 규중 안에서 임금의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것뿐입니다.”<sup>7)</sup>

7) 御朝講講綱目, 同知事金安國曰: “此記太后與神宗言, 論事甚詳, 此乃閨門之言, 非史官所得記, 必出於女史之筆, 自古女史, 於閨門之內, 人君舉動言行, 皆悉書之, 故外人知之, 而書之於策, 後人見之, 而知其善惡, 國朝之事, 未詳得之, 閨門之內, 祗席之間, 一動一靜, 豈能詳記之乎. 臣意可依古制置女史, 使得記動靜言爲可也.” 掌令奇遵曰: “安國之言當矣. 人主處深宮之中, 其所爲之事, 外人所不能知, 必有女史以書其善惡, 故雖深居九重之中, 幽獨得肆之地, 而不敢放過, 須依古置女史可也.” 上曰: “古者女子, 皆能屬文, 故女史得其人, 而宮壺之事, 詳記無遺, 今則能文之女蓋寡, 似不得易爲也.” 安國曰: “女史不必能文然後爲之, 若稍解文字, 則閨門之事, 隨所見以記, 使後王後賢, 知先生之於閨門之內, 幽獨之中, 無所闕失, 如此則其爲勸懲大矣. 外則左右侍從史官俱在, 而內闕女史, 大欠於治道, 閨門祗席間事, 後世子孫, 不知其何如, 甚不可也.” 侍講官李清曰: “俗所謂諺書不妨, 豈必以文字爲哉.” 上曰: “女史之任, 記善惡之事, 必得心正之女, 然後可也. 非特此也, 至於史官, 要須擇正直之人可也. 操史筆者, 類非人人所得爲也.” 李清曰: “史官與女史有異, 史官持公議明褒貶, 以示萬世, 女史則只記其閨闈之中, 人主日用所爲之

6) 사전을 찾아보면, 彤史란 “宮闈의 기거 등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은 여관의 이름” 또는 “궁궐의 생활을 기재한 궁의 역사”를 가리킨다. 良家の 여자 가운데 글을 아는 자를 뽑아서 宮闈의 기거와 內庭의 燕褒를 기록하게 했다고 설명되어 있다.

김안국 등의 주장은 옛 법에 따라 사관과는 별도로 女史를 두어 규문에서 임금의 거동과 언행을 기록하게 하여 바깥사람과 뒷사람에게 의혹이 없게 하자는 것이다. 규문에서 임금의 거동과 언행을 기록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결국 “규문 안 이부자리에서의 일”, 즉 임금을 둘러싼 왕후·비빈들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을 규찰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후·비빈들이 배후에서 임금을 은밀하게 조종하며 모종의 정치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임금의 입장에서 그런 제안이 반가울 리 없다. 사적 공간에서까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말과 행동에 제약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싫다고 할 수는 없고, 보다 그럴 듯한 명분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종종이 내세운 반대 이유는 근래에는 女史의 직분을 감당할 만큼 글에 능한 여자가 없다는 것, 女史의 직분도 결국 사필을 잡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女史의 직분은 규중의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것이니 언문으로도 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지만, 종종은 더 이상 가타부타 말이 없다. 약 녀 달 뒤에 심의가 올린 상소에서 다시 女史 제도를 건의하게 되는데,<sup>8)</sup>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사적 공간에서 왕과 왕후·비빈의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女史彤管의 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列聖后妃誌文이 한문과 국문으로 함께 전하여 왕후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sup>9)</sup> 왕후가 죽고 난 후에 씌어지는 제문과 시책문 등에는 彤管이란 단어가 흔히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彤管이란 일차적으로 ‘왕후의 역사’를 가리키며 나아가 ‘모범적인 여성의 역사’를 의미한다.<sup>10)</sup>

事而已.”(『중종실록』 14년 4월 22일(을유))

8) 仍此七事條陳, …… 五曰復野史, 六曰立女史, ……(『중종실록』 14년 8월 15일(병자))

9) 조선시대 列聖后妃誌文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는 다음 논문을 참조. 허원기, 「『닐성후비지문(列聖后妃誌文)』과 조선시대 왕비의 형상」, 『장서각』 2, 1999; 허원기, 「碑誌文에 나타난 왕과 왕비의 인물 형상」, 『한국한문학회연구』 30, 2002.

10) 그 몇 가지 사례를 인용한다. “비록 목소리와 모습은 이미 멀어졌지만 彤管의 기록이 있으니 행적을 징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縱音容之已闕, 彤管有記, 庶行迹之可徵.”(이단하, <仁敬

그런데 彤管이 비단 왕후에 대한 기록에 한정되지 않음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행장과 묘지문 등에서도 이 단어가 종종 사용되는 데서 알 수 있다.

○ 부인께서는 덕을 갖추고 행실을 닦아 귀하지만 스스로 절제하였고 부유하지만 검소하였다. 며느리 되고 어머니 됨에 본이 되지 않는 바가 없었으며, 옛날의 어진 여성을 두루 살펴봐도 실로 견주어 논할 대상이 드물다. 이에 劉向 『列女傳』의 취지에 근본하여 彤管에 부친다.<sup>11)</sup>

○ 우암 선생이 이미 표문을 써 주었는데, 유군이 또 나에게 묘지명을 써 달라 하였고 백부 또한 여러 차례 부탁하였다. 아아, 규문의 행실은 실로 밖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의 노래와 劉氏의 列傳은 풍속의 교화에 매인 것이니, 어찌 그것이 작다 하겠는가. 누이의 어쭙은 그가 비록 불행히 단명하였으나 우옹의 글로써 죽히 彤管을 감당할 것이니, 내가 쓴다 한들 여기에 무엇을 더하겠는가. 유군과 백부의 애통함을 기록하여 보낼 따름이다.<sup>12)</sup>

○ 내 나이 이제 50인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이 같은 인물은 아직 본 적이 없다. 아아! 그저 땅에 묻어 전함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추억을 더듬어

王后諡冊文>, 『畏齋集』); “삼가 바라옵나니, 英靈께서는 정성을 살피소서. 음성과 용모는 아득히 멀어져 하늘에 계시어 미칠 수 없으나, 꽃다운 烈은 오래 남아 오히려 彤管에 밝혀져 있습니다. 竊冀英靈, 昭格忱悃, 音容杳隔, 縱莫追於玄扃, 芳烈長存, 尚有徵於彤管.”(이단하, <明聖王后諡冊文>, 『畏齋集』); “부드러움과 온화함으로 임했고, 엄숙함과 의젓함을 스스로 지니시어 婦德에 맞으시니 彤管에 아름다운 이름을 끼칠 것입니다. 柔和以莅, 肅莊自將, 黃裳協吉, 彤管貽芳.”(조지겸, <仁敬王后國恤時教寧府進香祭文>, 『迂齋集』); “丹辰를 빛내 시며 彤管에 영예로움을 드리우시고, 마음을 합해 지극한 이치를 이루시니, 그 모습이 안팎에 드러났습니다. 麗明丹辰, 垂譽彤管, 協成至理, 形內及外.”(임상원, <仁敬王后大行時江華留守進香祭文>, 『恬軒集』)

11) 夫人德備行修, 貴而自抑, 富而能儉, 爲婦爲母, 靡不可法, 歷選古昔賢媛, 實罕倫比, 乃本原劉子政列女傳之旨, 以附于彤管.(김만기, <礪山郡夫人宋氏墓誌銘>, 『瑞石集』)

12) 尤菴先生旣表以文矣. 兪君又屬昌協爲誌, 而伯父亦屢詔之. 嗚呼, 閨門之行, 固不外見, 然詩人之歌詠, 劉氏之列傳, 風化所繫, 豈其微哉. 若妹之賢, 雖不幸短命, 而尤翁之文, 足以當彤管矣. 卽昌協有述, 又何加焉. 亦以識君與伯父之哀而已.(김창협, <從妹兪氏婦墓誌銘>, 『農巖集』)

한두 가지를 적어서 彤管의 채록에 대비한다.<sup>13)</sup>

여기서 彤管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보면, 彤管은 ‘여성의 역사’, 특히 ‘모범적인 여성의 역사’, 혹은 그에 대한 기술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망자인 여성의 아름다운 행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彤管에 빛을 드리운다’<sup>14)</sup>거나 ‘彤史의 기록도 이보다 낮지 않다’<sup>15)</sup>고 한 것은 彤管이 특히 모범적인 여성에 대한 기록으로 인식됨을 뜻한다.

김만기는 여산군부인 송씨의 묘지를 쓰면서, “유향 『열녀전』의 취지에 근분하여 彤管에 부친다”고 했다. 유향 『열녀전』의 취지란, 유교질서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제시하여 후대 여성들을 권면하는 것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행장과 묘지명 등에서 ‘지금 세상에는 유향이 없어 그 아름다운 행실을 전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탄식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sup>16)</sup> 이처럼 모범적인 여성에 대해 기록하는 것, 즉 彤管의 전통은 유향 『열녀전』의 전통과 같은 맥락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조선의 양반 남성들은 규방의 아름다움은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지만, 어머니의 존재가 영원히 썩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자식 된 도리요 정이라 했다.<sup>17)</sup> 때문에 그들은 돌아간 어머니와 누이, 아내와 딸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장을 짓고 당대에 글 잘하고 이름 있는 지인에게 묘지를

써 줄 것을 부탁한다. 좀처럼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없었던 전통사회의 여성이 죽음을 계기로 비로소 역사화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썩어지는 여성 대상 행장과 묘지 등은 ‘彤管의 채록에 대비’하거나 ‘彤管을 주관하는 사람을 기다리는’<sup>18)</sup> 1차 사료가 된다. 요컨대 고려 때부터 줄곧 이어졌던 여성 대상 행장과 묘지 등은 彤管의 전통 속에 놓인다고 말할 수 있겠다.

### 3. 재구성된 역사의 규범화된 일상

『한국문집총간』 전350권을 기준으로 볼 때, 상층남성이 남긴 여성 관련 산문이 현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이 17세기이다. 태어난 해가 1500년 이전인 작가들의 경우 여성에 관한 글을 단 한 편이라도 남긴 사람의 비율은 약 30% 정도이고,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태어난 작가들의 경우는 약 50%가 여기에 속한다. 반면에 1600년 이후에 태어난 작가들은 거의 모두가 적어도 한두 편씩은 죽은 여성을 위한 글을 남겼다. 『한국문집총간』에서 1600년 이후에 태어난 작가의 문집에 실린 여성 대상 전장문·비지문·애제문은 대략 2,000여 편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른바 ‘烈女’를 대상으로 한 傳이나 旌閨記는 편수로만 따지면 그 비중이 적다. 그러나 烈女傳은 실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망자를 위한 글쓰기’ 가운데 그 어떤 종류의 글보다도, 고전문학 연구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이 사실이다. 열녀의 행적에서 드러나는 소재적인 흥미, 행장이나 묘지 등에 비해 서사성이 강한 傳의 글쓰기적 특성, 열녀들이 보여주는 죽음에 대한 강박과 그들의 선택을 배후 조종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관심 등이 얽혀서 그랬을 것이다.

열녀전이 ‘특수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면, 여타 행장과 묘지 등은 ‘보

13) 且余行年五十, 毋論男女長幼, 未嘗見如此人物. 嗚呼! 其可以埋沒無傳也歟. 追紘一二, 以備彤管之採焉.(오광운, <亡妹小娘子行狀>, 『藥山漫稿』)

14) 竊念具著懿德, 納諸幽堂, 俾得垂光彤管, 永揚徽音, 庶可以少洩窮天罔極之情. 故茲敢略述其平日事實如右, 以俟夫當世立言之君子.(오도일, <先妣行狀>, 『西坡集』)

15) 雖彤史所載古賢婦懿德, 亦無以過之. 嗟乎! 如其烈, 如其烈!(권두인, <孺人李氏(權尙謹妻)旌閨銘>, 『荷塘集』)

16) “噫! 孺人眞女士也. 今世無劉宗正, 孰能載之冊書, 以示於今與後也耶?”(송시열, <孺人姜氏墓誌>, 『宋子大全』); “噫! 夫人之行, 可謂 備矣. 世有劉宗正, 豈不特書以彰其德行也.”(윤봉구, <大司諫孟公萬澤妻貞夫人李氏墓誌>, 『屏溪集』); “天旣毓此女士, 宜以弗祿綏之, 而迺使飽閱悲哀, 歿以窮苦, 爲親黨之所悼惜, 豈常理也. 然如孺人者, 眞所謂窮斯見德, 餉以令名者也. 是宜播美彤管, 以永其傳, 而惜乎! 世無劉向也.”(조관민, <孺人靑松沈氏墓誌銘并序>, 『梅軒集』)

17) 彤管之紀載邈矣, 中壘之傳不作久矣. 而房帷閨閣之懿範不著于世矣. 於是人子之欲爲不朽圖者, 必纂次輯錄其行, 以丐顯刻幽誌於一代能言之士, 斯實人子之情所不容己者也. 今觀柳郎中所述, 其母夫人蘇氏行錄, 雖古之彤管所紀, 中壘所傳, 奚讓焉?(김만기, <題柳母蘇氏行錄後>, 『瑞石集』)

18) 顧世之所謂大丈夫者, 意不及此, 而乃反出婦人口, 何但矜式於閨門之齋也. 其警夫彼磨頂踵於利勢之道, 洽洽然而不知恥者大矣. 余敢特書之, 以俟後之主彤管者云.(윤봉구, <淑人呂氏墓誌>, 『屏溪集』)

편적 일상'에 대한 기록이다. 사건이 일회적이라면, 일상은 반복적이다. 열녀전이 소재로 삼는 여성의 자결이 특수한 사건이라면, 여타의 행장과 묘지에서 그리는 여성의 삶은 주로 딸과 며느리,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보편적 일상들로 채워진다. 열녀전이 烈行으로 불리는 특별한 죽음에 대한 칭송이라면, 여타의 행장과 묘지 등은 상대적으로 평범한 여성들의 일생을 통해 보편적인 여성의 삶에서 기대되는 婦德을 재확인하고 권면하는 글이다. 그러나 기술의 대상이 특수한 사건이든 보편적 일상이든, 유교질서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가치규범을 교화하는 것이 열녀전이나 여타의 전장문과 비지문이 추구하는 거의 동일한 실질적 기능이었다. 그것은 유향의 『열녀전』을 비롯한 彤管의 전통이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행장과 묘지 등이 상술하는 내용은 중세의 상층<sup>19)</sup> 여성이 내면화 했던 '아비투스(habitus)'이기도 하다. 아비투스란 "체득된 코드를 사용하여 문화적 산물과 행위를 해독하는 내면화된 성향의 체계"이다. 그것은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주입과정을 통해 획득되는 것으로서,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걷고 말하고 먹는 방식, 즉 삶의 방식에 반영되는 일종의 '성향체계'를 말한다.<sup>20)</sup>

예를 들어, 대상 여성을 묘사할 때 흔히 동원되는 공식구 중 하나가 '웃음과 말수가 적다'는 것인데,<sup>21)</sup> 이는 그 여성이 부덕을 갖추었음을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 비복을 거느림에 엄하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그 어짙을 칭송하는 말이 자자했다는 식의 묘사도 매우 흔하다.<sup>22)</sup> 책임이나 시 짓기를

좋아하는 여성이라 해도 그들은 모두 부덕에 흠이 가지 않을 선에서 멈출 줄 알았다.<sup>23)</sup> 한결같이 그들의 삶은 시부모에게 효도하는 며느리,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어머니로 요약된다.<sup>24)</sup>

이처럼 행장과 묘지 등에서 그려지는 여성들은 분명 구체적인 시공을 배경으로 생존했던 특별한 개인들임에도, 그들이 보여주는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다분히 천편일률적이다. 그것이 추상적 규범으로 채색된 일반적 서술이건, 일화를 통한 구체적 서술이건, 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는 대동소이하다. 그것은 당대 여성들에게 부덕이란 이름으로 강제되었던 일상의 규범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상당히 내면화했을 아비투스인 것이다.

행장과 묘지 등이 평범한 여성의 보편적 일상을 기술하면서도 일상적 삶의 구체성과 개별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규범적 언술로 채색하는 데 그친 것은 자료적 가치 면에서 볼 때 분명한 한계이다. 그것은 이런 종류의 글이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 기록이 사실임을 표방하고 서술되지만 실은 상층 남성의 시각에 의해 재구성된 기록이라는 조건에서 연유한다. 요컨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장문과 비지문 등은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는 '사실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중세 남성지배질서의 이념과 가치에 의해 선택/배제되고 과장/축소되는 '재구성된 역사'인 것이다.

모든 역사서술에 있어서 서술자는 자신의 관점에 의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어떤 정보는 선택하고 어떤 정보는 배제하며, 어떤 사실은 강조하고 어떤 사실은 축소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전장문, 비지문, 애제문 등은 망자를 추모하는 뜻으로 씌어지기 때문에 생전에 망자의 실제 삶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료들을 완전히 사실과 동떨어진 기록으로 치부하고 버려둘 수는 없다.

김만중의 어머니 해평 윤씨가 경계했던 것처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19) 물론 조선의 여성 대상 전장문·비지문·애제문 가운데는 양반이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남아 있고 조선후기로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난다. 그러나 전체 편수를 따지면 그 비중은 극히 적다.

20) 피에르 부르디외, 정일준 역,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5, p.35, pp.61~63.

21) 몇 가지 예만 든다. “幼而靜淑, 不妄言笑.”(홍우원, <貞敬夫人宋氏行狀>, 『南坡集』); “笑語切稱, 見者疑其新免於喪者.”(송시열, <孺人淸風金氏墓碣銘并序>, 『宋子大全』); “常莊重自持, 不喜闢語戲笑.”(송시열, <令人宋氏墓表>, 『宋子大全』) “言笑不敢肆矣.”(오달재, <貞夫人高靈申氏行錄>, 『忠烈公遺稿』)

22) 몇 가지 예를 든다. “撫恤婢僕, 雖有過失, 惟戒飭而已, 未嘗輒加罵詈, 以故咸愛戴, 誦其仁惠焉.”(이단하, <外姑貞夫人李氏墓誌>, 『畏齋集』); “待婢僕, 嚴而有恩. 其少者常申戒飭, 俾無惰慢之行, 其老者曲施撫恤. 俾有依歸之所, 婢僕亦以此爲盡其力焉.”(이단하, <先妣貞夫人行狀>, 『畏齋集』); “遇親戚和而敬, 御婢僕嚴而惠, 以此內外宗黨, 舉稱其賢.”(박세채, <孺人李氏行錄>, 『南溪集』)

2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경하, 「17세기 사족여성의 한문생활, 그 보편과 특수」, 『국어국문학』 140, 2005 참조.

24)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於戲! 自世道降而闔範缺, 閨門之內, 甚少以女德稱者, 惟淑人內行純備, 動遵禮法. 孝於舅而爲賢婦, 順於夫而爲賢妻, 以義方教其子而爲賢母, 豈古所謂女士者非歟?”(김간, <淑人朴氏墓誌銘>, 『厚齋集』)

에도문이 지나치게 망자를 미화하는 폐단이 있고 후대로 갈수록 그런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폐단을 지적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여 쓸 것을 더욱 강조했던 당대 서술자들의 자기반성적 태도 역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현대 연구자들이 이런 자료를 다룰 때 ‘사실의 기록’임을 맹신하거나 ‘재구성된 역사’란 측면을 확대 과장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서술에 있어서 선택과 배제, 과장과 축소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면,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이 없는가를 살피면서 기록의 행간을 읽어내는 것은 연구자의 몫이다.

#### 4. 보편적 일상의 흔적들

모처럼 일상사와 미시사 같은 역사학계의 새로운 바람으로 ‘일상’이 주목받는 이 시점에, 여성 대상의 행장·묘지 등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전근대 사회의 여성에 관한 기록은 워낙 희소하기 때문에, 여성 대상 행장과 묘지 등은 그 자료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긴요한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대상 인물만 바뀔 뿐 ‘부덕의 칭송’이란 주제를 대동소이하게 기술한 듯 보이지만, 그 자료들은 서술자가 드러내고자 한 주제 외에도 당대 여성의 일상적 삶에 관한 뜻밖의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 ①여덟 살 때 난간에 기대어 앉아 뜰에서 닭들이 싸우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내가 밖에서 들어오며 이렇게 말했다. “닭싸움은 아녀자가 볼 만한 것이 못 돼.” 그러자 누이가 혼연히 깨닫고 이로부터 다시는 놀이삼아 구경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②우리나라 풍속에 언문으로 번역한 폐설을 부녀자들이 서로 돌려봄이 매우 심했다. 누이는 어렸을 때부터 왕성하게 책을 읽어 막힘이 없었지만, 예에 어긋나는 대목을 만나면 곧 책을 덮고 읽지 않았다. ③나라에 경사스런 예식이 있을 때면 山棚을 설치하여 양반집 사람들이 길가에 누각을 차지하여 구경하곤 했다. 식견이 있는 부인들이라도 간혹 유행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누이는 이를 매우 그르게 여겨 한 번도 구경하

러 나간 적이 없었다.<sup>25)</sup>

이것은 오광운이 죽은 누이동생을 위해 쓴 행장의 일부이다. ①②③의 예를 통해 오광운이 말하고자 한 것은 자기 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덕을 갖추어 다른 일반 부녀자들과는 달랐다는 점이다. 여덟 살 아래의 누이는 오광운이 이 행장을 쓰기 30년 전에 겨우 11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그는 나이가 50에 평생 동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누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sup>26)</sup> 겨우 11년을 살다 간 여자아이에게는 과도한 칭찬이라 하겠지만, 늙은 오빠가 어려서 죽은 여동생을 그만큼 예쁘고 순수한 처녀로 기억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하튼 오광운이 말하고 싶었던 주제와는 별도로, ①②③의 이 대목들은 단편적이거나 닭싸움, 산봉 구경, 소설 읽기 등 18세기 초에 양반 부녀자들이 일반적으로 즐겼을 법한 놀이문화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그런 유사한 사례들은 여성 대상 행장이나 묘지 등에서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맹만택의 아내 전주 이씨가 정숙한 여성이었음을 드러내기 위해 언급된 쌍륙놀이 일화는 오히려 당시 양반가에서 일가 부녀자들이 모여 흥겹게 쌍륙놀이를 즐기는 것이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sup>27)</sup> 조선후기 여성들의 보편적인 글쓰기의 하나였던 편지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갖는 다양한 용도와 의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여성 대상 행장, 묘지, 제문 등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이다.<sup>28)</sup>

여성 대상 행장이나 묘지 등이 담는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

25) 八歲，憑欄坐，庭有鬪鷄，偶見之，余從外來曰：“鬪鷄非婦女所宜見。”妹欣然聽悟，自是未嘗游目。國俗譚籙稗說，簪珥間傳觀甚盛，妹自幼少，沛然讀無礙，遇禮者，輒掩卷不遇目。國有吉禮及設山棚，搢紳家爭占道傍樓閣觀之，雖有識婦人，或不免流例，妹甚非之，未嘗一赴觀。(오광운, <亡妹小娘子行狀>, 『藥山漫稿』)

26) 且余行年五十，毋論男女長幼，未嘗見如此人物。嗚呼！其可以埋沒無傳也歟！追敘一二，以備彤管之採焉。(오광운, <亡妹小娘子行狀>, 『藥山漫稿』)

27) 諸女羣居，治紅之暇，呼雙擲陸，聲氣若小高，吾母亟去其局，責其有違於雅貞之行。(윤봉구, <大司諫孟公萬澤妻貞夫人李氏墓誌>, 『屏溪集』)

28) 이경하, 「17세기 상층여성의 국문생활에 관한 문헌적 고찰-여성대상 傳狀文·碑誌文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39, 2005, pp.3~13.

찬가지라 해도, 이런 자료를 읽을 때 보다 유의할 점은 망자의 부덕 칭송이란 동일한 주제가 아닌 듯하다. 주제가 드러나는 다양한 방식에 유념하면서 그 행간에 숨어 있는 그들의 삶에 관한 여러 흔적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술자는 경우에 따라 표면적 주제 뒤에 다른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흘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 타고난 성품이 장중해 예의와 공경함으로 스스로를 지켰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다. 대략 『소학』과 『내훈』 등의 글을 통달했고, 항상 말하기를 “불행하게 부인이 되어 부녀자의 일을 놓고 문장과 역사를 공부할 수 없으니, 이것이 한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수증이 책을 볼 때 그 곁에서 하나 둘 깨달아 격언과 선행에 이르면 감동하곤 했었다. 고금의 치란과 시비, 사람의 사특하고 바름을 능히 분별하여 이를 논하고 경계하는데 또한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어둡고 지혜로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말과 글쓰기를 절대 지나치게 하지 않았다.<sup>29)</sup>

이것은 김수증이 쓴 아내 창녕 조씨의 행장의 일부이다. 이 행장에서 물론 창녕 조씨는 17세기 사대부 집안의 부녀자로서 갖추어야 할 부덕을 골고루 갖춘 인물로 그려진다. 왕실과 관련이 있는 집안의 여성으로서, 당시의 유행이나 풍속을 좇지 않고 대단히 검소하게 생활했음이 글 전편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또한 김수증은 아내의 한문생활에 대해서도 ‘식견은 높되 말과 글을 지나치게 하지 않았다’는 말로써 상층 여성에게 기대되는 수준과 태도를 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부인으로서 문장과 역사를 공부할 수 없어 한이다’라는 평소 아내의 소회를 그 사이에 넉넉히 끼워 넣었다. 어쩌면 ‘망자를 위한 글쓰기’를 통한 부덕의 칭송과 교화라는 굳건한 전통 속에서, 서술자인 남성조차도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충분히 할 수는 없었는지 모른다.

29) 天姿莊重，禮敬自將，而雅有鑑識。略通小學內訓等書，常謂不幸爲婦人，不可舍己所事 學習文史，此爲可恨。故於壽增看書時，從旁領會其一二，至格言善行，有所感動。其於古今治亂事是非人邪正，能有所分別，論事設譬，亦無不中。然不示人以賢智色，言語書辭，絕無過溢。(김수증, <亡室淑人曹氏行狀>, 『谷雲集』)

전통사회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烈女의 자결과 같은 특수한 사건의 주인공이기보다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보편적 일상으로 채워진 삶을 살기 마련이다. 그런 삶을 살았던 여성은 특수한 사건과 공적을 위주로 한 역사 서술에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어렵다. 때문에 김창협이 딸 김운은 “여자로써 세상에 공덕을 드러낼 수 없으니, 차라리 일찍 죽어 아버지의 글을 얻어 묘석에 새기는 것만 못하다.”<sup>30)</sup>고 탄식하며, 아버지가 외형 이유의 요절한 딸을 위해 묘표를 써준 것을 보고 그 불후함을 부러워했다. 그런데 역사에 이름을 남겨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욕망이 김운에게만 특별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 그런데 하루는 심씨에게 시집간 큰고모님이 둘째 셋째 고모님들과 함께 소자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서 하루아침에 죽을지 모른다. 어머니의 현숙함을 끝내 사라지게 한다면 우리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니, 너는 不朽之策을 도모하여라.”<sup>31)</sup>

○ 비록 우리 여자들이 무식하지만 시누이의 의로운 행실이 민멸됨이 한스러운 일이란 것은 또한 안다. 지금 너희가 어머니를 위해 행장을 짓고 명을 짓는다니, 아! 이제 우리 시누이가 不朽하겠구나. 아아! 내가 늙어서 정신이 혼미하여 네 어머니의 일을 상세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작은 기록에는 단 한 마디도 사실과 동떨어진 것은 없다. 너희들이 시험 삼아 이것을 가지고 네 어머니 영전에 고하여 물어 보아라. 영혼도 얹어 있다면 내가 무고한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sup>32)</sup>

30) 居士昔嘗爲一家殤女作墓文，女時見之曰：“是尙得翁文爲不朽其死，非不幸也。”問又謂明仲。“吾女子也。恨無功德見於世，無寧蚤死得吾父數行文，以鐫墓石。”(김창협, <亡女吳氏婦墓誌銘>, 『農巖集』)

31) 一日伯姑母沈氏婦同仲叔二姑母，命小子曰：“吾輩年皆耆耄，朝暮死耳。若使吾母之賢，終於泯滅，吾輩目且不瞑，汝其亟圖所以不朽也。”(윤봉구, <大司諫孟公萬澤妻貞夫人李氏墓誌>, 『屏溪集』)

32) 雖以吾女子無識者，而亦知小姑行義泯沒之爲可恨，今若輩爲若母氏，圖狀銘，噫！吾小姑其不朽哉。嗟乎！吾老嫗，不能詳記若母事，而今此小錄，無一辭適實，若輩試以是錄，告質于若母氏靈，靈如有知，不以我爲誣。(권만, <先令人豐壤趙氏行錄>, 『江左集』)

첫 번째 인용문은 윤봉구가 쓴 맹만택의 아내 전주 이씨의 묘지 중 일부이다. 이 묘지는 전주 이씨의 손자 맹지대가 대부분 고모들의 구술을 인용하여 할머니의 행적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용한 대목은 맹지대의 고모들, 즉 전주 이씨의 딸들이 어머니의 존재가 영원히 잊혀지는 것을 슬퍼하여 조카에게 ‘不朽之策’을 도모하도록 당부하는 부분이다.

둘째 인용문은 권만의 어머니 풍양 조씨의 행록 중 일부이다. 조씨 부인은 권만이 열 살 때 죽어서 권만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외백모가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행록을 지었다고 한다. 권만이 여러 외숙에게 어머니의 젊은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하자, 외백모 김부인이 “우리 시누이의 일을 소상히 아는 건 이 노인네만한 사람이 없지.”라고 하며 언문으로 세세히 적은 여러 장 편지를 권만에게 보내 주었다고 했다.<sup>33)</sup> 권만은 아버지의 말씀과 외백모의 언간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행록을 꾸몄다. 인용한 대목은 그 언간의 마지막 부분이다. 김부인은 시누이의 생전을 회고한 끝에 시누이의 불후함을 기원하고 다행으로 여기며 자신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자신하고 있다.

행장과 묘지를 통해 재구성된 여성들의 삶은 딸과 아내와 며느리와 어머니로서의 보편적 일상으로 채워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은 대개 천편일률적으로 보이는 규범화된 언술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칭송을 목적으로 한 규범화된 언술 속에서도 당대 여성들의 보편적 일상의 흔적을 문득문득 엿볼 수 있으니, 자기 존재의 불후함을 꾀했던 과거 여성들의 모습을 그런 흔적들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 5. 맺음말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행장, 묘지 등은 ‘망자를 위한 글쓰기’의 견고한 전통 속에서 부덕의 칭송과 교화라는 동일한 주제와 의도를 가지고 비슷비슷

한 형태로 오랫동안 생산되고 소비되어 왔다. 또한 그런 글쓰기는 ‘망자를 위한 글쓰기’ 전통과는 별도로, 일상생활 속에서 후비의 잘잘못을 기록함으로써 권계의 효과를 노렸던 女史彤管의 전통을 잇는 것이기도 하다. 기억하는 주체였던 조선의 상층 남성들에게 모범적인 여성의 삶을 기록하는 것은 곧彤管의 전통으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대상 행장과 묘지 등은 대개 평범한 삶을 살다간 여성들의 보편적 일상의 규범화된 재현이란 점에서, 특수한 사건의 기록이랄 수 있는 열녀전과 구별된다. 이 자료들은 개개인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삶을 여성 일반에게 기대되는 규범적인 일상들로 채색함으로써, 중세 유교질서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일상의 규범과 이념을 반복 재생산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후비의 잘잘못을 기록함으로써 권계의 효과를 노렸던 女史彤管의 전통이 ‘망자를 위한 글쓰기’ 전통과 만나면서, 그렇게 여성의 일상적 삶을 통제하는 ‘일상의 정치’가 지속되었다 할 것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여성은 일차적으로 기억하는 주체일 수 없었지만 온전히 기억되기도 어려웠다. 과거 여성에 대한 기억이 희미한 만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행장과 묘지 등은 그 천편일률성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적 가치가 적지 않다. 규범화된 일상의 재구성이라는 뚜렷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 덕분에 우리는 과거 여성에 대한 기억을 이만큼이라도 가질 수 있다.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는 것은 현대 연구자의 몫일 것이다. 그것이 불후함을 원했던 과거 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33) 既乃抵諸舅，請錄示丁卯以前事，外伯母金夫人聞之曰：“嗟乎！詳吾小姑事，莫老物若也。”遂以諺字連牘細書，以寄不肖曰。(권만, <先令人豊壤趙氏行錄>, 『江左集』)



## 참고문헌

『中宗實錄』  
 『江左集』  
 『谷雲集』  
 『南溪集』  
 『南坡集』  
 『恬軒集』  
 『農巖集』  
 『屏溪集』  
 『瑞石集』  
 『西坡集』  
 『宋子大全』  
 『藥山漫稿』  
 『迂齋集』  
 『畏齋集』  
 『忠烈公遺稿』  
 『荷塘集』  
 『悔軒集』  
 『厚齋集』

이경하, 「17세기 상층여성의 국문생활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국문학논총』 39, 2005.

\_\_\_\_\_, 「17세기 사족여성의 한문생활, 그 보편과 특수」, 『국어국문학』 140, 2005.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편,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허원기, 「『널성후비지문』과 조선시대 왕비의 형상」, 『장서각』 2, 1999.

\_\_\_\_\_, 「비지문에 나타난 왕과 왕비의 인물 형상」, 『한국한문학연구』 30, 2002.

피에르 부르디외, 정일준 역,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5.

## A Tradition of Donggwan(彤管) and Gender Politics on Daily Lives

Lee, Kyung-Ha

One topic of this essay is that women's Haengjang(行狀), records of a dead person's life, and Myojimyong(墓誌銘), a kind of epitaphs, originated from a tradition of Donggwan(彤管). In ancient China, Donggwan originally meant documents that Yeosa(女史), a female historiographer, recorded daily lives of queens, and the meaning changed to 'a history of ideal women' in Joseon Dynasty. In this essay, I regard women's Haengjang and Myojimyong as writing belonged to tradition of Donggwan as well as tradition of 'writing for the dead'.

Another topic is to discuss what value women's Haengjang and Myojimyong have as historical materials. Scarcity of materials and historical records is one of big problems in studies of women's classical literary history. In this viewpoint, Haengjang and Myojimyong are very important sources for women's history. Because so many women's Haengjang and Myojimyong were written during Joseon Dynasty and the documents often contained many kinds of informations about women's daily lives. However, women's daily lives were usually represented as very normative forms, which spoke for gender politics in women's daily lives in the Middle Ages.

Key words: Donggwan(彤管), Yeosa(女史), women's history, Haengjang(行狀), Myojimyong(墓誌銘), daily lives, gender politics.

접수일자 : 2007. 4. 15  
 심사기간 : 2007. 4. 20~2007. 5. 10  
 게재결정 : 2007. 5. 20